

건강하고 품격있는 알프스 녹차 밥상 드세요

하동 화개골 정소암의 찻잎마술 녹차·최치원 활용 식사 등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차 시배지 **하동** 화개동에서 명품 **하동녹차**와 시(詩) '호리병 속의 별천지로 유명한 고운 최치원을 활용한 알프스 녹차 밥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지난 12일 **하동**군 화개면에 따르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대표 정소암)'이 최근 녹차 등을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찻잎마술이 내놓은 녹차 밥상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운비빔밥', 고운 선생의 시 '호중별유전'에서 착안한 '별천지짬', 녹차 소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토끼봉 달빛', 매화와 토종매실을 결합한 **하동**느낌 등 4가지.

고운비빔밥은 통일신라시대 지리산 화개골에 머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살았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담백한 비빔밥이다.

이 비빔밥은 통들깨·제철푸른채소·우영조림·무나물·도토리묵기루 등 계절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재료에 녹차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근 집 간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별천지짬은 동쪽 나라 화개동을 속세를 떠난 별천지와 같다라는 한 고운 선생의 시를 활용해 만든 메뉴로 통삼겹살에 녹차소스와 찻잎을 넣어 조리된 점으로 달콤 짭짤한 풍미가 일품이다.

토끼봉 달빛은 5월 중순이면 새벽 4시에 달빛을 보며 토끼봉으로 뽕나무를 뜯으러 간 화개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든 메뉴로, 녹차 소스와 녹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어 마늘과 곁들여 먹는 고소한 추어의 표고버섯 달빛밥이다.

마지막으로 **하동**느낌은 6월 말 수확한 토종매실을 녹차꽃 효소에 담가 흰밥 위에 올린 매실 초밥으로 와사비 대신 들어간 녹차스프레드와 매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상큼한 맛을 내는 별식이다.

찻잎마술은 4종의 매뉴 외에 광양제철소가 생기기 전 남해바다에서 다량 생산된 해우(김의 사투리)에다 새우와 땅속에 묻어 둔 밤을 깎아 넣어 먹었던 해우국(김국)에 착안해 뜨거운 국물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추천메뉴로 '어화둥둥 해우국'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소암 대표가 바람, 강물, 풍경에 반해 섬진강 배리길을 걷다가 생각해 낸 메뉴로 '섬진강 명물' 재첩을 재료로 납레노소 누구나 좋아할 재첩 사브사브 '섬진강 알츠도 내놔'.

이들 식사메뉴는 모두 녹차를 활용한 차꽃 와인 과 차씨 오일, 차꽃진이 함께 제공되며 식사 후 개인위생에 따라 손뉘임차, 전품재살, 백차, 차공차, 유자재살 등의 차류도 셀프로 즐길 수 있다.

찻잎마술은 녹차 음식과 차류 외에 차꽃을 숙성한 와인, 차씨를 추출한 오일, 아릅다운 녹차꽃에서 추출한 꿀 차꽃진(차꽃꿀), 3년을 숙성시킨 녹차꽃으로 만든 천연발효 차꽃 식초도 개발해 판매한다.

김성도 기자 kso@hannamlibo.com

27.7 X 15.3 cm



건강·품격있는 ‘녹차 밥상’ 드세요

하동 화개골, 최치원 활용 식사·차 메뉴 개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차 시배지 **하동** 화개동에서 명품 **하동** 녹차와 시(詩) ‘호리병 속의 별천지’로 유명한 고운 최치원을 활용한 ‘알프스 녹차 밥상’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12일 **하동**군 화개면에 따르면 용강마을 ‘정소암의 찻잎마술(대표 정소암)’이 최근 녹차 등을 식재료로 ‘알프스 녹차 밥상’을 개발해 지역민은 물론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찻잎마술이 내놓은 녹차 밥상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 ‘고운비빔밥’, 고운 선생의 시 ‘호중별유천’에서 착안한 ‘별천지찜’, 녹차 소스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토끼봉 달빛’, 매화와 토종매실을 결합한 ‘**하동**느낌’ 등 4가지.

먼저 고운비빔밥은 통일신라시대 지리산 화개골에 머문 고운 최치원 선생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먹고 살았을 모습을 상상하며 만든 담백한 비빔밥이다.

이 비빔밥은 통들깨·제철푸른 채소·우영조림·무나물·도토리묵가루 등 계절별로 다르게 들어가는 재료에 녹차씨앗과 청국장으로 담긴 집 간장을 비벼 먹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별천지찜은 ‘동쪽 나라 화개동을 속세를 떠난 별천지와 같다’라는 한 고운 선생의 시를 활용해 만든 메뉴로, 통삼겹살에 녹차소스와 찻잎을 넣어 조린 찜으로 달콤 짭짤한 풍미가 일품이다.

토끼봉 달빛은 5월 중순이면 새벽 4시에 달빛을 보며 토끼봉으로

봄나물을 뜯으러 간 화개사람들을 떠올리며 만든 메뉴로, 녹차 소스와 녹차 오일에 표고버섯을 구어 마늘과 곁들여 먹는 고소한 추억의 표고버섯 덮밥이다.

마지막으로 **하동**느낌은 6월 말 수확한 토종매실을 녹차꽃 효소에 담가 흰밥 위에 올린 매실 초밥으로, 외사비 대신 들이간 녹차스프레드와 매실의 궁합이 잘 어울려 상큼한 맛을 내는 별식이다.

찻잎마술은 4종의 메뉴 외에 광양제철소가 생기기 전 남해바다에서 많이 생산된 해우(김의 사투리)에다 새우와 땅속에 묻어 둔 밤을 깎아 넣어 먹었던 해우국(김국)에 착안해 뜨거운 국물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추천메뉴로 ‘어와둥둥 해우국’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소암 대표가 바람, 강물, 풍경에 반해 심진강 백리길을 걷다가 생각해 낸 메뉴로, ‘심진강 명물’ 재첩을 재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재첩 사브사브 ‘심진강 알츠’도 내놨다.

이들 식사메뉴는 모두 녹차를 활용한 차꽃 와인과 차씨 오일, 차꽃진이 함께 제공되며, 식사 후 개인취향에 따라 손뽀음차, 전통적삼, 백차, 차공차, 유자재삼 등의 차류도 셀프로 즐길 수 있다.

찻잎마술은 녹차 음식과 차류 외에 차꽃을 숙성한 와인, 차씨를 추출한 오일, 아름다운 녹차꽃에서 추출한 꿀 차꽃진(차꽃眞), 3년을 숙성시킨 녹차꽃으로 만든 천연발효 차꽃 식초도 개발해 판매한다.

최두열기자



하동 화개동에서 개발한 ‘알프스 녹차밥상’(별천지찜) /사진제공=하동군

‘한시 읊기 대회’ 하동서 내일 개최

목암서사 한시연구회(회장 이기송)는 15일 오후 6시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 인근에 있는 카페 호모 루덴스에서 ‘제1회 한시 읊기 대회’를 연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목암서사에서 한시 짓기 및 한문 강독, 초서강독을 비롯해 다양한 고전문학 공부를 하는 한시연구회 회원들이 갖는 첫 번째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7명이 기존의 한시를 각자 선정해 읊는다. 제2부에서는 회원 각자가 지은 자작 한시를 읊는다.

제3부에서는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있는 적멸보궁 관음정사 주지인 보우스님이 4수의 한시를 읊는다.

이기송 회장은 “한시 짓기에 이제 입문한 회원들이 미흡하지만 각자 공부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행사를 갖게 됐다”며 “또한 지리산 화개골은 예전부터 많은 문인들이 찾아와 쟁계사 등을 소재로 한시를 읊은 문학적 공간이어서 그 맥을 잇고자 이번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귀현기자
7.9 X 10.6 cm

중양일보

매화·벚꽃 흐드러지는 계절... 경남 곳곳서 봄축제

17일부터 원동마을·쌍포광장 등서 이틀간 매화축제 - 특산물 장터도 31일부터 내달까지 ‘진해군항제’

봄을 맞아 이번 주말을 시작으로 5월까지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양산시 원동면 원동마을과 쌍포대실 다목적광장에서 열리는 원동 매화축제는 꽃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원동역에서 원동마을 인근까지 이동하는 곳곳에서 마술사의 거리공연, 수와 진의 버스킹 공연 등이 이어진다. 양산시 민 동아리의 작은 음악회, 매화 언덕길 어쿠스틱 버스킹 공연도 볼 수 있다.

원동마을에서 이어지는 독길을 따라

‘매화 인생’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운영되고, 원동주민의 이야기를 모은 ‘원동 고향 이야기’ 전시가 열린다. 프리마켓과 전시체험 부스, 사생 실기대회, 원동 특산물 직거래장터도 마련된다.

양산시는 코리얼과 협의해 원동역 정차 열차를 최대한 증편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원동면 함포·선장·내포·영포마을에서는 제4회 원동 청정마나리 축제가 열린다.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제56회 진해군항제는 오는 31일 개막해 다음 달 10일까지 열린다. 진해 여좌천 로맨스 다리, 경화역, 장복산 공원, 안민도로 등에서 36만 그루의 화려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오

는 28~4월 4일 남부지방에 벚꽃이 필 것으로 내다봤다.

군항제에선 이종무공 호국정신 계승행사, 여좌천 별빛축제와 문화공연, 속천항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군악 의장 페스티벌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평소 출입이 통제되던 해군사관학교, 해군교육사령부, 진해 기지사령부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100년 이상된 빛나무의 꽃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군항제에는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마세틱 프린세스호의 대만 관광객 500여 명이 방문한다.

창원시는 축제 기간 최대 명소인 여좌천 1300m를 차·노점상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여기면 과태료 부과와 강제 견인하기로 했다. 이외 다음 달 6~8일 창원 부곡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봄 축제가 펼쳐진다. 지난해 열린 원동매화축제가 꽃이 개화한 모습. [중앙포토]

운천축제. 다음 달 7~9일 하동 화계정터 벚꽃 축제와 동영 봉숫골 꽃 나들이 축제가 열린다. 창원 진동 미더덕 축제와 사천 삼천포항 수산물 축제는 다음 달 13~15일 열린다. 창원 낙동강 유채 축제(4월 13~17

일), 의령 의병제전(4월 19~22일), 함안 아라 문화제(4월 20~22일), 함천 황매산 철쭉제(4월 28~5월 13일), 남해 보물섬 미조항 딸치&바다축제(5월 4~6일)도 이어진다.

위성목 기자 we@joongang.co.kr
29.4 X 9.9 cm